

## 생태중심적 사회로의 전환과 문학

신문수 (서울대학교)

### 국문요약

지구촌이 당면한 환경 위기는 그 극복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로 심화되고 있다. 위기가 일상화되다 보니 위기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냉소적 태도마저 노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근저에는 기술의 혁신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진보의 신화가 자리잡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자본주의 체제를 과감하게 개편하여 생태중심적 사회의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 급격한 체제 전환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런 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생태적 자아의 정립과 장소성의 회복 그리고 생태교육의 강화를 꼽을 수 있다. 문학은 본질적 지향성에서 또 그 구조와 형식을 통해 생태중심적 삶의 방식에 대한 유추적 체험을 제공해왔다. 생태 의식의 각성과 생태중심 문화로의 전환에 선도 역할을 해온 문학생태학은 또한 문학의 지평을 확대시키고 문학을 보는 관행의 변화도 이끌어내고 있다.

주제어: 환경 위기, 생태중심적 사회, 생태적 자아, 장소성, 생태문화력, 문학생태학

### I. 환경 위기의 일상화

1970년 인류가 당면한 환경 위기의 심각성을 범세계적으로 일깨운 ‘지구의 날’이 제정된 지 어언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환경오염으

로부터 지구를 살려내고자 하는 노력이 사안에 따라서 혹은 국지적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지구촌 전체로 보면 위기는 전방위적으로 더욱 확산되며 악화일로에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002년의 『과학』지가 전하는 통계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는 60억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15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치를 밑도는 탁한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고, 10억 가량은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있으며, 20억은 위생 시설이 불량한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최근 잦아진 기상 이변과 기후변화, 시도 때도 없는 황사 현상, 생물 다양성의 지속적인 감소, 그리고 태안의 기름 유출, 최근 구미의 불산 가스 유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처럼 되풀이되는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막심한 피해는 지구 생태의 현황을 웅변해 주는 듯하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인류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곳곳의 생태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지구가 묵시록적 파국을 향해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가령 가이아 이론의 창시자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은 최근의 저서 『가이아의 복수』(*The Revenge of Gaia*)에서 지구가 파국을 향한 악순환의 체계에 빠져들고 있어서 사태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sup>1)</sup> 러브록은 파국의 전조이자 그 동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 간 협약을 통한 전지구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난화 추세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러브록의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해조류와 열대우림을 감소시키면 해양과 열대우

1) James Lovelock, *The Revenge of Gaia: Earth's Climate Crisis and the Fate of Humanity* (New York: Basic Books, 2006).

림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그 여파로 지구 기온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 온난화로 북극의 영구동토대가 녹으면 얼어 있던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실 효과가 24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 대기 중에 방출되고, 그로 인한 동토지대의 해수화는 지구의 반사율(albedo)을 하락시켜 기온 상승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얼음층의 해빙은 또한 해수면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해안 지대의 침식과 잦은 폭풍을 야기하여 재난의 반복으로 이어지게 된다.<sup>2)</sup> 문제는 이런 악순환이 온난화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인구과잉, 생물다양성의 감소, 산성비, 극상(極相) 수립의 소멸, 토양침식, 사막화, 살충제와 제초제의 과다 사용, 유해 화학 물질의 범람,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 하천과 연안 해역의 오염 등이 서로 엮물리면서 생태계를 위협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암담한 지구촌의 현실은 보다 과감한 대응 체제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가령 존 벨라미 포스터(John Bellamy Foster)와 같은 경제학자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장 자본주의 세계 체제를 혁파하고 생산양식과 생태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자연생태계와 인간이 상호 의존하는 공동체적인 경제 체제로 바꾸는 문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sup>3)</sup> 그러나 지구촌 전체로나 국가적으로 구성원들의 시각과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이런저런 논의만 무성할 뿐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지구의 미래에 대한 파국의 경고음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것은 생존과 직결된 ‘나’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지 않다는

2) James Lovelock, *The Revenge of Gaia: Earth's Climate Crisis and the Fate of Humanity* (New York: Basic Books, 2006), pp. 34~35.

3) 존 벨라미 포스터, 박종일 역, 『생태 혁명: 지구와 평화롭게 지내기』 (서울: 인간사랑, 2010), pp. 19~52.

점이다. 특히 선진 개발국 사람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태도는 미국 소설가 돈 드릴로(Don DeLillo)의 소설 『백색 소음』(*White Noise*)의 주인공 잭 글래드니(Jack Gladney)와 흡사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교수인 글래드니는 도시에 치명적인 화학 가스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것이라고 나몰라라는 태도로 일관한다. 환경 피해의 잦은 반복과 답습해온 사회 체제의 관성적 타성이 물론 환경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무디게 하는 요인일 수 있다. 환경 문제의 특수성, 곧 그것을 야기하는 요인이 복잡하고, 국지적이면서도 종종 국제적 양상으로 표출되고, 단선적 논리나 기계적 인과성을 비껴서는 의외성과 불확실성을 띠기 일쑤라는 점도 위기의 일상화에 한 몫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보다 궁극적인 원인은 근대 산업사회 이후 사람들의 의식을 사로잡아 온 기술만능주의와 진보의 신화에 매몰되어 있는 마음의 습속 탓이 아닌가 한다.

일반대중은 물론 환경위기의 구체적 실상을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상당수가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환경문제는 결국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기술진보에 대한 이런 맹신과 그것을 추동하고 있는 개발 이데올로기에 대한 집착이 사태의 근원을 도외시키고 지엽말단적인 미봉책에 안주하는 원인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경제 발전과 기술 진보에 대한 환상은 환경 악화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경우 환경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얼마 전에 『회의적 환경론자』(*The Skeptical Environmentalist: Measuring the Real State of the World*, 1998)라는 책을 출판하여 논쟁을 불러일으킨 뵘 롬보그(Björn Lomborg)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덴마크출신으로 한때 그린피스 운동에도 참여한 적이 있는 롬보그는 이 책에서 환경위기나 환경 재앙은 확실한 증거 없이 환경운동가들에 의해 과장된

것이거나 심지어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롬보그는 대부분의 환경론자나 환경운동단체들이 지구 환경의 악화를 당연시하여 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종말론적 사고에 젖어 있고,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환경 분야의 연구와 환경 개선에 보다 많은 재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황을 실제보다 더 나쁜 것처럼 의도적으로 과장해왔으며,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 언론 매체의 센세이셔널리즘적 보도 경향이 이를 또한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지구 환경 위기는 환경운동 집단의 정치적·경제적 이해와 언론 매체가 합작하여 만들어낸 ‘신화’라는 것이다.

기실 생태중심주의는 나이브한 유토피아적 환상에 불과하고 그 주장자들 또한 패러노이아적 멘탈리티의 소유자라는 비판은 종종 제기되어 왔다. 이런 냉소적 비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경제 발전에 대한 환상과 녹색 기술의 혁신에 대한 맹신이 깔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많은 데이터와 통계 수치를 전거로 지구환경이 나쁘지 않다는 롬보그의 ‘과학적’ 주장도 예외가 아니다. 가령 지구온난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롬보그는 환경론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홍수가 지금보다 더 잦아지리라는 예상은 속단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제 발전의 과실로 홍수 대비를 지금보다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기오염 문제에 그는 경제적 효율성을 따진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기온 상승에 대처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 삼을 만한 이슈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자원의 고갈 염려에 대해서도 그는 통계상 지구 전체 가용 수자원의 17% 밖에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지난 50년 간 지구상의 삼림 면적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한다.<sup>4)</sup>

<sup>4)</sup> Bjørn Lomborg, *The Skeptical Environmentalist: Measuring the Real State of the*

롬보그의 이런 주장은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녹색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생태 근대화론자들의 논리를 빼앗은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녹색 기술의 효율화가 자본 축적의 확대와 경제적 팽창으로 이어져서 효율의 증대로 이루어낸 성과가 무화되어 버리고 환경이 일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한다. 이들은 또한 경제의 지속적인 팽창으로 인해 원자재를 공급하는 지구 생태계에 대한 착취와 훼손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불가치적 과학 기술의 고도화는 그 자체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사회체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지적하는 대로 서구 근대 사회를 견인해온 기술공학은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나머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속수무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재화의 끊임없는 확대 생산이 사회적 풍요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기술중심주의 사회를 벡은 '위험사회'(risk society)라고 지칭한다. 연전에 뉴올리언즈를 침수시킨 태풍 카트리나 사태나 최근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는 위험사회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고도 기술사회를 위험사회로 빠뜨릴 수 있는 위하는 사회 체제를 추동해온 동력 그 자체의 부산물이라는 점과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국지적이거나 계층적이라기보다는 전지구적이고 범사회적이기 때문에 그 여파는 실로 가공한 것이다.<sup>5)</sup>

---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 150.

5) 울리히 벡, 홍성태 역,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1997), pp. 48~50.

## II. 생태중심적 사회 구축을 위한 토대

환경 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전 지구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환경 위기의 현황과 그 원인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인문학을 비롯한 전 학문 분야에서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이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기저에는 지구촌이 당면한 환경문제는 이제 기술혁신이나 경제적 관점의 대증적 처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있다는 공감의 깔려 있다. 앞서 언급했던 포스터와 같은 급진적 환경론자들은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흐름의 완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방향 전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현존의 자본주의적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자연과 상호의존적인 역동적 공동체를 새롭게 재건해야만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제안은 물론 오늘의 상황에서 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푸념만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는 없다.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 자연과 상호의존하는 삶의 체계로 전환하는 거시적 기획과 더불어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생태친화적인 문화를 가꾸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요컨대 진정한 생태혁명은 의식의 각성과 문화의 정서 구조를 바꾸는 사회혁명이자 문화혁명이라야 한다.<sup>6)</sup>

오스트레일리아의 생태학자 발 플럼우드(Val Plumwood)는 오늘의 환경 위기가 인간과 생태의 연관성을 도외시한 파괴적이고 무분별한 기술 공학에 의존한 인간중심적, 이성중심적인 문화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그런 자기파괴적 문화를 생태중심적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할

<sup>6)</sup> 포스터, 『생태 혁명: 지구와 평화롭게 지내기』, p. 51; 펠릭스 가타리, 윤수중 역, 『세 가지 생태학』 (서울: 동문선, 2003), p. 9.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녀는 친환경적 문화 패러다임의 정착을 위해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인간의 자아를 생태적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이외의 생명체를 윤리적으로 대하는 생태윤리적 태도의 함양이다.<sup>7)</sup> 얼핏 진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두 과제는 사실 근대 문화의 근본 틀을 바꾸자는 혁명적인 제안이다. 또 양자는 별개의 과제가 아니다. 인간을 자연과 유리된 존재로 보면서 그것의 무분별한 이용과 정복이 정당화되었고, 그와 동시에 인간과 여타의 자연 생명체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결국 생명체를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것으로 보는 관행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생태중심적 사회체제 구축을 위한 플럼우드의 제안은 결국 인간의 삶과 문화의 심층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자아 개념의 재정립 그리고 그에 입각한 문화의 녹색화로 요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 삶의 토대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그것에 입각하여 일상 문화의 개혁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삶의 변화는 내적 반성과 그것에 조응하는 외적 질서의 변증적 실현으로 나아갈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의 환경운동은 대부분 후자에만 역점을 두어 왔다. 주지하듯 심층생태학은 이런 피상적 생태운동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대두된 것이다. 의식의 각성과 자연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심층생태학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필자는 생태중심적 사회 구축을 위한 문화적 토대 마련의 기획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자아의 재정립, 둘째, 장소성의 회복, 셋째, 생태문해력의 함양이 그것이다.

생태중심적 자아의 정립이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아가 주체적 의식과 행동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삶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가치관의 변혁과 거

---

<sup>7)</sup> Val Plumwood, *Environmental Culture: The Ecological Crisis of Reason* (London: Routledge, 2002), pp. 8~9.



시적인 사회정치적 제도의 혁신을 통해 이룩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출발은 구체적 현실 속의 개인의 삶이다. 우리의 삶은 거시적으로 사회문화적 현실에 구속되어 있지만 삶의 주체로서의 자아가 그 삶에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부여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인간 주체는 주어진 사회문화적 질서 속에서 나날의 삶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그 질서에 일정하게 개입하여 변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인간의 자아는 정태적이고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갱신의 과정 속에 있는 형성적 실체이기 때문에 이 끊임없는 쇄신의 가능성이 사회의 현상적 질서를 답습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체적 자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사회체제 변화의 기획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태중심적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근대 사회체제의 정초가 되어온 데카르트적 내향화된 자아를 지양하고 다른 사람은 물론 자연을 이루고 있는 모든 생명존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생태적 자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 기획에서 심층생태학자 아르네 네스(Arne Naess)가 말한 생태적 자아의 개념은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네스는 인간의 자아가 전면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주변의 모든 생명체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네스에 따르면 인간의 성숙은 자기중심적 의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아로, 더 나아가 형이상학적 자아실현을 지향하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만이 강조되고 자연과의 근원적 연관성이 도외시되어 왔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만이 아니라 “아름답든 추하든, 크든 작든, 감각을 갖췄든 아니든 모든 자연 생명체와의 동일시”를 통해 개체적 자아를 넘어서서 확장되고 심화된 생태적 자아로 성숙해 나갈 것을 요청받는다.<sup>8)</sup> 이 요청은 자아실현이라는 내적 욕

<sup>8)</sup> Arne Naess,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구에서 비롯된다. 자아실현은 통상 삶의 목표와 의미의 구현을 의미하지만 보다 넓게는 생명 존재에 본유적으로 내재하는 잠재적 가능성의 발현을 뜻한다. 그런데 존재의 잠재적 가능성은 고립된 상태나 사회적 관계로 국한된 상태에서보다는 자연생명체를 포함한 모든 존재자와의 상호연관 속에서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 또한 하나의 생명체로서 스피노자가 말하는 코나투스(conatus), 곧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근본적 욕구를 지니기 마련이고, 자아실현이란 자기 보존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인간 자아는 자기중심적 소자아에서 자기 보존의 내적 필연성에 따라서 다른 존재자 전체를 포괄하는 대자아로의 확장을 지향한다. 더욱이 나의 잠재적 가능성은 다른 존재자의 잠재적 가능성이 최대한 발현될 때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의 자기실현은 필연적으로 나는 물론 타 존재자의 잠재적 가능성의 계발에도 동참할 것을 요청받는다.

인간이 삶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필연적 욕구에서 개체적 자아를 넘어서서 다른 뜻 생명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생태적 자아의 정립을 지향한다고 할 때, ‘동일시’(identification)라는 말의 이해는 중요하다. 동일시는 일차적으로 타 존재와의 정서적 동질성, 상호 이해, 공유성의 내면화를 의미한다. 심층생태학자들은 이런 일반적 의미에 생존을 위한 이기심(self-interest)의 공유를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덧붙이고 있다. 네스는 자신동일시를 ‘유대감’(solidarity)과 구분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한 바 있다. 유대감이 “도덕적 정의에 대한 추상적 공감”에서 비롯되는 감정이라면, 동일시는 연관된 존재자가 공유적 이익을 내면화함으로써 존재자 상호간의 일체성을 삶의 경험으로 즉각적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sup>9)</sup> 다시 말해 동일시는 타 존재를 보살피고 존중하고, 그 생존에 책임

---

Press, 1989), p. 225.

감을 느끼며 그것을 깊이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이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나의 생존과 자아실현의 일환이다. 다른 생명체와의 동일시의 밑바탕에는 이처럼 존재의 자기실현 욕구, 곧 자기보존적 이기심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적 차원의 문제이다. 칸트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 윤리적 책무로서가 아니라 본성의 발현으로 나타날 경우 이를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부른 바 있는데, 생태적 자아의 확장도 그런 아름다운 행위의 일종인 것이다. 다른 생명체와의 동일시를 통한 확장된 자아의 정립을 심층생태학은 이처럼 도덕적 정언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존재의 내적 욕구로 설정하고 있다. 에릭 캐츠(Eric Katz)가 비판한 대로 자연 생명체의 존중과 생태계의 보살핌을 당위적인 생태윤리로서가 아니라 존재의 자기 보존이라는 이기심의 발로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스의 생태적 자아 개념은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sup>10)</sup> 그러나 네스의 이런 관점은 생존을 위한 내재적 충동에 기반하지 않은 인간 행동은 결국 한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네스가 제시하는 생태적 자아는 근본적으로 관계적 자아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고립된 단자가 아니라 주변의 다른 생명체는 물론 물리적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 교류 속에서 삶을 펼쳐 나가는 존재이다. 그 밑바탕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 체계를 이루고 있고 그 체계를 이루는 존재자들은 저마다 그 나름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는 생각이 깃들어 있음이 물론이다. 거기에는 또한 인간이 그 관계들의 체계에서 중심적인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구성원일 뿐이며 따라서 인

9) Ibid., p. 172.

10) Eric Katz, “Against the Inevitability of Anthropocentrism,” ed. Eric Katz, Andrew Light, and David Rothenberg, *Beneath the Surface: Critical Essays in the Philosophy of Deep Ecology* (Cambridge: The MIT Press, 2000), pp. 33-39.

간은 다른 구성원들과 그렇게 이루어진 공동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태 윤리적 시각 또한 전제되어 있다. 이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도 그대로 해당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마찬가지로 다른 인간 존재와 상호 주관적 관계망을 이루며 나날의 삶을 이어간다. 그 관계는 매쉴스(Freya Mathews)의 지적대로 편의적이고 이용하는 도구적 관계, 지배와 착취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해와 인정 그리고 상생 협력하는 관계이다.<sup>11)</sup> 생태적 인간은 다른 구성원의 필요와 복리를 존중하는 자세로 자신의 삶을 정립하고 그런 유대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생태적 자아의 정립은 이처럼 생태중심적 사회 건설의 초석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태적 자아는 개인주의를 선양해온 근대 자유주의 전통의 인본주의적 자아와 다르다. 그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적 이성(주지하듯 육체는 물론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내면을 응시하는 가운데 확인된 것이다. 다시 말해 데카르트적 자아는 대상과 분리되어 모든 것을 객체화하는 자아이다. 세계를 대상적 존재로 격하시킴으로써 근세의 주체철학은 인간을 만유의 중심으로 세웠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간을 삶의 본바탕으로부터 유리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인간 존재가 본래적 거처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켜온 이 같은 근세 철학의 도정은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말한 대로 존재망각(Seinsvergessenheit)의 사태로 이어졌다.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의 모든 존재자들과의 네트워크 속에 자신을 정립하는 생태적 자아는 기실 삶의 본래적 거처에 뿌리내린 자아, 곧 장소 의식을 내면화한 자아이기도 하다. 장소 의식의 회복은 실로 생태중심적

11) Freya Mathews, "Community and the Ecological Self," ed. Freya Mathews, *Ecology and Democracy* (London: Frank Cass, 1996), pp. 76~77.

사회체제 구축을 위한 의식과 문화의 개혁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이다. 뷰얼(Lawrence Buell)의 인상적인 표현 그대로 “있는 곳이 없이는 존재 자체도 없”(There never was an is without a where)기 때문이다.<sup>12)</sup> 다시 말해 인간의 사회적 관계이든 사물 존재와의 연관이든 그것은 존재하고 있는 장소를 통해서 그 참다운 의미가 드러난다. 어느 편이든 그 관계는 앞에서 살핀 대로 주객의 대립이나 지배와 종속의 구도 속에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조용하면서 보살피고 배려하는 연기(緣起)의 망을 이룬다. 하이데거가 철학적 소명으로서 회복하고자 하는 고향, 그 본질 공간도 실상 존재자들이 상호 연관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곁에 모으는 곳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근대 산업사회 이후 인간의 삶은 이주와 유랑을 강요받은 노마드적 삶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산업화·근대화는 사람들을 농장으로, 광산으로, 공장으로, 도시로 내몰았다. 근대의 기술문명은 사람들에게 탈향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산천을 오염시키고 훼손하여 황폐화시켰다. 시선을 세계사적으로 확대하면 서구의 식민주의 야욕과 제국주의적 침탈과 더불어 이향의 삶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탈식민주의 이론이 환기시키는 것처럼 디아스포라야말로 근대 세계의 가장 특징적인 사회 현상이었다. 서구 근대문명은 비유럽 세계에서 원주민의 토착적인 삶을 유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적 세계 체제의 유지를 위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서로 다른 대륙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렇게 토착적 삶의 양식이 붕괴되고 지역문화가 파괴되면서 인간은 ‘탈구된’(displaced) 존재로 전락해갔다. 과학과 기술공학의 발달 또한 장소의 특수성을 희석시키고 인간을 뿌리 뽑힌 존

12) Lawrence Buell, *Writing for an Endangered World: Literature, Culture, and Environment in the U. S. and Beyond*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p. 56.

재로 만드는 직접적인 동력을 제공했다. 기술혁명은 거리를 단축시켜 공간적 장벽을 무너뜨렸으나 그와 동시에 인간의 삶에 밀착되어 있던, 개별적이고 지방적인 ‘장소’를 일상적 삶과 멀어진, 동질적이고 추상화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인터넷이 표상하는 최근의 디지털 혁명과 그와 더불어 가속화되는 세계화·지구촌화는 이런 경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현대사회의 무장소성의 심화 현상에 대해 지리학자 렐프(Edward Relph)는 이렇게 말한다.

장소가 정말로 인간이 세계에 존재하는 데 근본적 속성이라면, 또 개인이나 집단에게 있어 안정과 정체성의 원천이라면, 의미 있는 장소를 경험하고 창조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바로 이런 방법들이 사라지고 있고, 장소의 독특하고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이 약화되는 현상, 즉 무장소성이 지금 지배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징후들이 많다. 이런 경향은 실존의 지리적 토대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변화란 장소에 깊이 뿌리내린 삶으로부터 뿌리 뽑힌 삶으로의 변화이다.<sup>13)</sup>

인용문이 말하는 “뿌리내린 삶으로부터 뿌리 뽑힌 삶으로의 변화”는 환경 파괴의 심화와 동궐을 이루어왔다. 그것은 또한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삶이기도 하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산업화의 물결에 밀려 고향 산천이 파괴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란 로렌스(D. H. Lawrence)는 『묵시록』(*Apocalypse*)에서 “우리는 우주 세계와의 상호교감적인 관계에서 벗어남으로써 결국 그것을 잃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쓴 바 있다.<sup>14)</sup> 본래적 삶의 터전을 상실한데다가 자연과 멀어진 현대인은

13)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2005), pp. 34~35.

14) D. H. Lawrence, *Apocalypse* (New York: Viking, 1967), p. 27.

사물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일차적 경험이 결핍되면서 감각이 둔화되고 감정도 메말라 가기 마련이다.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삶은 자연에 대한 경험적 지식의 희박화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자연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을 낳는다. 심신이 황폐화된 오늘의 도시적 삶은 그리하여 로버트 파일(Robert Pyle)이 말하는 “무감정의 사이클”(cycle of disaffection)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sup>15)</sup>

시인 김광규는 본래적 삶의 터전을 박탈당하고 황폐화된 도시를 고향삼아 살아가는 현대인의 초상을 기형화된 물고기에 의탁하여 이렇게 그리고 있다.

등이 굽은 물고기들  
 한강에 산다  
 등이 굽은 새끼들 낳고  
 숨막혀 혈떡이며 그래도  
 서울의 시궁창 떠나지 못한다  
 바다로 가지 않는다  
 떠나갈 수 없는 곳  
 그리고 이젠 돌아갈 수 없는 곳  
 고향은 그런 곳인가

- 「고향」 전문

“등이 굽은 물고기들”이라는 표현이 상기시키는 것처럼 자연과 멀어진 실향의 삶은 병든 삶이다. 환경심리학자들은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 그리고 우울증, 불안증, 주의력 부족,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심리적·정신적 질환들이 자연과 멀어진 도시 환경과 무관하지 않음을 지

<sup>15)</sup> Robert M. Pyle, *The Thunder Tree: Lessons from an Urban Wildland* (Boston: Houghton Mifflin, 1993), p. 147.

적하고 있다.

대다수의 현대인은 도시의 시궁창에서 “숨막혀 혈떡이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지친 심신을 기댈 안식처도, 돌아갈 고향도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생태중심적 사회의 구축은 우리의 삶에서 떨어진 자연을 되찾고, “기억이 유일한 귀향의 길”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sup>16)</sup> 이런 점에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생물지역주의(bioregionalism)나 재거주(reinhabitation) 운동은 주목된다. 생물지역주의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구획한 생활 단위를 지형, 기후, 식물상 등을 고려한 자연사적 관점에서 새롭게 구분하고, 이런 생물지리학적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한 형편에 최적인 생활양식을 자연을 통해 배워 실천하자는 운동이다. 요컨대 생물지역주의는 이제까지 인간사에서 소홀시 되어 온 장소의 복원을 으뜸가는 이념적 전제로 삼는다. 게리 스나이더의 표현대로 그것은 “역사의 변증법에 장소를 끼어 넣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sup>17)</sup> 미국 태평양 연안에서 생물지역주의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짐 닷지(Jim Dodge)는 자연 생태계의 복원,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연합공동체의 구축, 자연생태계와 인간정신의 연계를 재발견하기를 그 구체적 세목으로 거론하고 있다.<sup>18)</sup> 그 실천적 기획의 하나가 재거주 운동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문명에 의해 손상되고 파괴되어온 땅으로 돌아가 ‘터에서 살아가기’(living-in-place) 방식을 배우며 그곳의 정착민으로 자리잡는 것을 뜻한다. 재거주는 물론 단순히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낭만적 제스처와는 거리가 멀다. 버그(Peter Berg)와 대스만(Raymond Dasmann)에 따르면, 재거주

<sup>16)</sup> Terry Tempest Williams, *Refuge: An Unnatural History of Family and Place* (New York: Vintage, 1991), p. 4.

<sup>17)</sup> Gary Snyder, *No Nature: New and Selected Poems* (New York: Pantheon Books, 1992), p. 85.

<sup>18)</sup> Jim Dodge, “Living by Life: Some Bioregional Theory and Practice,” *CoEvolution Quarterly*, 32 (1981), pp. 6~12.



는 정착지 안과 주변의 생물지리와 생태활동을 익혀서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고, 생명부양체계를 복원하며, 생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탱 가능한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것이다.<sup>19)</sup> 따라서 재겨주는 인간이 생명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 따라서 다른 생명체에 대한 더 이상의 착취와 남용을 그만두고, 그들과 더불어 상생의 삶을 산다는 투철한 자각을 포함한다.

장소에 착근된 삶의 방식의 모색은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하이데거의 철학이 강조하듯이 존재의 마땅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자아는 시간 속의 동일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확장과 심화를 통해서 보다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자아로 거듭날 수 있다. 지나간 삶의 자취가 새겨져 있는 장소와의 만남은 그러한 자아 확장과 쇄신의 기회가 된다. 장소는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하나로 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내장되어온 야생의 예지와 에너지를 소통시키고 순환시키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생태교육은 생태중심적 문화의 구축을 위한 기획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사항이다. 바람직한 태도 함양과 그에 입각한 사회 체제의 건설은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요청하기 때문이다. 친환경적 의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연생태계에 대한 지식은 물론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분주한 일상에 자연과의 접촉이 거의 차단되다시피 한 오늘날의 삶은 생태문해력(ecological literacy)의 함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오늘날 포장된 도로와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환경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의 흔한 풀과 꽃과

<sup>19)</sup> Peter Berg and Raymond Dasmann, "Reinhabiting California," *The Ecologist*, vol. 7, no. 10 (1977), p. 399.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른다.

자연에 대한 이 같은 무지는 우리가 당면한 환경 위기의 징후이면서 또한 원인이기도 하다. 자연과의 관계 회복은 자연에 대한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각종 생태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하고 동시에 자연과 보다 용이하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학교, 관공서, 병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더욱 녹색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도 근린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원이나 작은 정원과 같은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도심에 녹색지대를 만드는 것은 경관의 미화나 공기 정화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연친화적 삶을 자극하고 생태 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의 첫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태문해력은 무엇보다 생명의 터전인 자연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읽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연은 사실 복잡한 세계이다. 생태학자들은 흔히 자연의 바람직한 상태를 ‘균형’과 ‘조화’ 혹은 ‘평형’이라는 말로 설명하지만 그 또한 비유일 뿐이다. 예컨대 미국의 생태학자 클레멘츠(Frederic C. Clements)는 일찍이 식물 천이 과정에서 식물군락이 기후, 지형, 수분 등과 균형을 이룬 안정된 정점에 이른 단계를 극상(climax)이라고 부르고 그런 단계에 이른 숲이나 초원을 거대유기체로 보았다. 그러나 극상 단계가 균형 상태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균형인지, 그것이 심층생태학에서 말하는 조화의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가 과연 성숙한 유기체와 동일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sup>20)</sup> 자연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이처럼 단편적이고, 제한적이

<sup>20)</sup> Dana Phillips, *The Truth of Ecology: Nature, Culture, and Literature in America*

며,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스나이더는 『무자연』(*No Nature*)의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는 쉽사리 자연을 알지 못하며 심지어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한다. 그것이 실제 무엇이든 우리의 개념이나 가정을 충족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예상과 이론적 모험을 피해갈 것이다. “자연 세계”나 “사물의 본질”과 같이 단 하나의 또는 집합적인 “자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연에 표할 수 있는 최상의 존경심은 그것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를 피해 간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본질도 유동적이며 열려있고 조건적임을 인정하는 것이다.<sup>21)</sup>

자연생태계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하나의 생명체로서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인간 삶의 복잡성에 대한 스나이더의 경고는 한편으로 자연 앞에 겸허할 것을,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에 대한 관찰과 인식이 과학적이면서도 종합적이고 전문적이면서도 유기적이어야 함을 일깨운다. 자연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예로부터 박물학이라 일컬었지만 오늘의 당면한 환경위기의 해결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어느 한 분과학문의 지식과 처방이 아니라 그야말로 박물학적인 다양한 학문 영역이 교차하는 융합과 통섭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환경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절실한 생태문해력의 함양 또한 이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자연생태계가 물리적 체계로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물론 그것을 이루고 있는 개체들의 상호 연관성, 더 나아가 사람과 사회 그리고 생태계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생물종의 멸종, 토양 침식, 숲의 황폐화, 사막화,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생태계가 당면한 절박한 문제와 현황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인간의 문명이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p. 54-56.

21) Gary Snyder, *No Nature: New and Selected Poems*, p. v.

어떻게 해서 자기파괴적이 되었는데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이런 모든 것에 우선하여 생태문해력은 추상적 지식이 아니라 공감적 이해, 사실의 확인이 아니라 심미적 성찰을 지향한다. 요컨대 김종철의 지적처럼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보다 우선해서 ‘환경적 감수성’을 심어 주어야 한다. 아무리 환경적 지식이 많아도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보지 못하는 사람은 환경적 존재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sup>22)</sup> 그리하여 자연생태계의 질서와 운행에 대한 숙지, 생명체에 대한 외경심과 보살핌, 심미적 감수성, 그리고 구체적 실천은 생태문해력의 근본을 이룬다.

### III. 문학생태학의 대두와 그 지평

오늘의 절박한 환경 위기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의식의 각성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생태중심적 사회로의 전환을 요청한다고 할 때 문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문학 또한 한편으로는 당면한 위기에 경종을 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되돌아볼 것을 촉구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기실 문학은 그 본령을 상기할 때 원래가 생태적이다. 문학은 늘 삶의 근본을 성찰하고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의 길을 모색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존망이 걸린 환경 위기의 현실에 문학이 눈을 돌린 것은 당연하다. 문학의 현실 참여 문제가 한 때 논쟁의 대상이 된 적이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은 순수/참여 문학에 상관없이 문학적 상상력의 원동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듯 지난 한 세대 동안 문학을 보는 세 가지

<sup>22)</sup> 김종철. 『땅의 옹호: 공생공락의 삶을 위하여』 (대구: 녹색평론사, 2008), p. 337.

준거는 인종, 젠더, 계급이었다. 이런 시각의 문학적 조망을 통해 문학은 사회적 타자를 억압해온 현실의 모순을 고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와 평등을 향유하는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그 나름의 일조를 해왔다. 문학적 상상력의 근원에 깃들어 있는 인간다운 삶에의 열망이나 유토피아에의 희원은 자연스럽게 우리와 우리 이웃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생태 위기의 문제로 문학의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룬 문학 작품들이 새롭게 주목되고 그런 시각에서 쓰여진 작품들이 자연문학 혹은 생태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범주화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날로 심화되는 오늘의 환경위기는 생태적 자아의 정립과 문화의 녹색화를 시대적 소명으로 요청했고, 문학은 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그것의 극복을 위해 생태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고취하는데 앞장서왔다. 생태비평에 대한 최근의 특별 포럼 자리에서 로버트 웨스(Robert Wess)는 인종, 젠더, 계급이라는 “문학비평의 성스러운 삼위”(the holy trinity of literary criticism)에 인간의 물질적 탐욕과 지배욕의 또 다른 희생자인 자연을 첨가할 것을 역설했는데, 그것은 환경 문제가 이제 문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부상했음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고 그들이 펼쳐 보이는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 삶 일반에 대한 우리의 이해 지평을 넓히고 심화시킨다. 서로 다른 인물의 행동과 그들이 처한 상황은 서로 얽히면서 보다 넓은 전체성으로 통합된다. 이 전체성은 문학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가 상호 침투되면서 형성된 제3의 세계이다. 인물들의 행동은 이렇게 얻어진 보다 큰 전체성의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재조명되고, 독자 자신의 삶의 길 또한 이런 전망 속에서 새롭게 모색된다. 문학작품 속의 인물의 행동과 그 상황이 하나의 전범적 모델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자

신의 삶의 문제와 그 해답의 모색은 보다 뚜렷하고 의미 있는 전망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자기 이해 또한 심화된다. 문학적 체험은 이처럼 ‘자아 만들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것이다. 스벤 버커츠(Sven Birkerts)는 문학적 독서가 소중한 것은 그것을 통해 지식을 얻고 자기 향상을 꾀하고 삶의 지평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서만 아니라 그것이 독자가 자아의 내면으로 침잠하여 자신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라는 점을 역설한 적이 있다.<sup>23)</sup> 문학 작품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생태적 자아 정립에 가장 효과적인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문학은 형식의 차원에서도 생태중심적 삶의 방식을 유추적으로 체험하게 해준다. 문학텍스트는 다양한 삶의 체험이 창조적으로 교직되면서 하나의 유기적 전체를 이룬다. 문학 작품에 묘사된 다양한 삶의 현실과 그 맥락은 서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의 연관성 속에서 서로 얽히고설키며 삶의 전체상을 현시한다. 뿐만 아니라 문학 텍스트는 지배적인 담론과 널리 통용되는 서사 장르뿐만 아니라 잊혀지고, 배제되고, 주변화된 담론과 장르들이 서로 교직되며 생성된다. 문학텍스트는 미하일 바흐찐(Mikhail Bakhtin)이 지적하였듯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목소리와 언어들, 어우러지는 대화의 공간이다. 이질적인 것들이 긴밀한 상호 연관성 속에서 유기적 전체를 이루는 문학 텍스트의 구조와 형상화의 원리가 곧 “모든 것들이 그 밖의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주의 명제의 미학적 변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텍스트는 명시적으로 생태주의적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더라도 삶의 경험을 구조화하는 형식의 차원에서 이미 생태학적 예지를 발현한다. 이런 시각에서 독일의

<sup>23)</sup> Sven Birkerts, *The Gutenberg Elegies: The Fate of Reading in an Electronic Age* (New York: Faber and Faber, 1994), p. 79.

문예학자 후베르트 잡(Hubert Zapf)은 문학이 문화 속의 가장 강력한 생태학적 세력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문화와 자연의 상호연관성을 탐구하는 문화생태학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있다.<sup>24)</sup>

인간을 만유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연을 대상적 존재로만 여겨온 인간중심주의를 지양하고 생태중심주의에로의 가치관의 전환이 환경 문제 해결의 근본적 출발점이라고 할 때, 문학은 그 체험의 공감적 효과의 측면에서 또한 주목의 대상이 된다. 참다운 의미의 가치관의 변환이나 인식의 전환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논리보다는 마음의 공감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윤리학이 강조하듯이 중요한 가치와 덕목은 주입식 방식으로는 가르치기 어렵다. 그런 가치들은 정서적, 심미적 경험을 통해서 체험되고, 이해되고, 수용되고, 인격 속에 체화되어야 한다. 문학은 이런 자발적 내면화에 이르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이다.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독자는 작품 내용을 자신의 이야기로 전화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인 삶의 경험으로 추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다시 말해 문학적 체험은 감정이입과 동일시의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의 의식 속에서 일종의 고유한 경험으로 변모한다. 문학적 서사가 이처럼 독자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변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

24) 생태학의 핵심적인 명제가 문학텍스트의 내적 구조 속에 발견되어 있음을 상세히 논증한 후 잡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Literature is an ecological force within culture not only or not even primarily because of its content, but because of the specific way in which it has evolved as a unique form of textuality that, in its aesthetic transformation of cultural experience, employs procedures in many ways analogous to ecological principles, restoring complexity, vitality and creativity to the discourses of its cultural world by symbolically reconnecting them with elemental forces and processes of life—in non-human nature, in the collective and individual psyche, in the human body"(Hubert Zapf, "Literature as Cultural Ecology: Notes Towards a Functional Theory of Imaginative Texts With Examples from American Literature," *REAL*, 17 (2001), p. 93).

의 심층 내면을 자극하고 그리하여 깊고 지속적인 의식의 변화가 수반될 수 있는 것이다.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다룸으로써 문학 작품은 그리하여 독자들에게 그 어느 매체보다도 절실하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학을 통한 생태의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생태학이 태동하게 된 데에는 문학이 생태중심적 삶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이 같은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문학생태학은 환경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하자는 생태주의의 요구에 대한 문학의 화답인 것이다. 문학생태학(literary ecology)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한 조셉 미커(Joseph Meeker)는 1974년에 이미 그것의 관심과 방향을 이렇게 쓰고 있다. “문학이 인간 행동과 자연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찾아내기 위하여 — 곧, 문학이 인간의 안녕과 생존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문학이 인간이 다른 생물종이나 주변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에 어떤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문학을 주의 깊고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25)</sup> 미커의 말에 함의되어 있듯이 문학생태학은 문학 작품을 통하여 생명의 귀중함을 일깨우고, 자연에 대한 공경심을 불러일으키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자극하고자 한다. 이런 시각에서 생태비평가들은 처음에는 환경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용성의 차원에서 생태의식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문학 텍스트들을 관심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그리하여 전원시, 낭만주의 시, 지방색 문학, 자연기 등이 문학생태학의 중요 텍스트로 새롭게 부상하였다.

새롭게 정립된 문학생태학의 정초를 다지고 그 방향을 모색하는데 주

<sup>25)</sup> Joseph W. Meeker, *The Comedy of Survival: Studies in Literary Ecology* (New York: Scribner's, 1974), p. 4.



제적 관심이 선명한 이런 텍스트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런 주제적 관심이 골레가 되어 문학생태학의 범위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문학생태학의 관심이 예컨대 낭만주의 문학과 자연기 등에 편중되고 있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십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문학생태학이 궁극적으로 생태중심적 사회체제 구축을 위한 의식의 각성을 지향한다고 할 때 주제 의식이 생경하게 노출되는 자연 문학에만 집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자연문학은 메시지의 강렬함으로 당장의 효과를 클지 모르지만, 자칫 피상적인 수사와 구호의 차원에만 머무를 위험도 있다. 이념 지향적 비평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 중의 하나는 이념의 선명성은 종종 그 스스로를 배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1999년 미국현대어문학회가 마련한 환경문학에 대한 포럼에서 슬로빅(Scott Slovic)은 문학생태학의 범위를 넓힐 것을 촉구하면서 “명시적인 환경 텍스트의 경우는 그것을 어떤 비평적 시각으로 읽든 의미 있는 문학생태학적 독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반대로 일견 자연에 대해 무관심한 듯한 텍스트의 경우는 텍스트에 내재하는 생태학적 의미와 인간-자연 간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해내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6)</sup> 슬로빅의 주장은 문학생태학이 우리의 삶과 문학을 근본적으로 쇄신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학문적 관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관심 영역의 확장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제학으로서가 아니라 방법의 학으로서 자기 정립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물질적 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구로서 타자화된 자연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터전으로서 자연에 대한 외경심의

<sup>26)</sup> Scott Slovic, “Letter,” *PMLA*, vol. 114, no. 5 (October 1999), p. 1102.

함양을 강조하는 문학생태학의 등장은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킴으로써 문학을 보는 관행도 변화시켰다. 그동안 문학에서 자연 환경은 인물의 행동과 사건이 펼쳐지는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특히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 리얼리즘 문학이나 인간의 내면세계 묘사에 관심을 기울였던 모더니즘 문학에서 물리적 배경은 작품 구성의 부차적 요소로 간주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문학생태학의 등장과 함께 문학의 지평이 확대되면서 장소 의식 혹은 장소성은 문학적 상상력을 일구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강조되고 있다. 로렌스는 일찍이 토마스 하디(Thomas Hardy)의 문학 세계의 진정한 주인공은 인물들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비극적 삶을 주형하는 웨섹스의 황야, 이그돈 히쓰(Egdon Heath) 그 자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기실 근대 이전의 설화나 서사문학, 비극, 혹은 지방색(local color) 문학에서 물리적 환경은 결코 장식적 배경이 아니다. 여기에서 자연 환경과 대지는 나날의 삶을 추동하면서 인간의 내밀한 정서와 상상력을 빚어내는 근원적 힘으로 나타난다. 문학생태학은 그리하여 이제까지 소외되어 왔던 장르와 작가와 작품들을 문학의 중앙무대로 복권시키고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 문학공화국의 주변부에 밀려나 있던 여행기, 판타지 소설, 전원문학(pastoral), 향토문학(regional writing) 등이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고 그와 더불어 향토성 짙은 작가들도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 레오폴드(Aldo Leopold)의 『샌드 카운티 연감』(*A Sand County Almanac*)과 같은 과학적 산문도 문학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새롭게 진입하며 문학의 지형도를 다시 그리게 하고 있다. 오늘의 환경 위기는 이처럼 문학의 관심과 방향은 물론 그 내부 지형도마저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문

- 김종철. 『땅의 옹호: 공생공락의 삶을 위하여』. 대구: 녹색평론사, 2008.
-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2005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1976].
- 울리히 벡. 홍성태 역.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1997 [Ulrich Beck,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Frankfurt: Suhrkamp, 1986].
- 존 벨라미 포스터. 박종일 역. 『생태 혁명: 지구와 평화롭게 지내기』. 서울: 인간사랑, 2010 [John Bellamy Foster, *The Ecological Revolution: Making Peace with the Planet*. New York: The Monthly Review Press, 2009].
- 펠릭스 가타리. 윤수중 역. 『세 가지 생태학』. 서울: 동문선, 2003 [Félix Guattari, *Les Trois Écologies*. Paris: Galilée, 1989].

### 영문

- Berg, Peter and Raymond Dasmann. "Reinhabiting California." *The Ecologist*, vol. 7, no. 10 (1977), pp. 399~401.
- Birkerts, Sven, *The Gutenberg Elegies: The Fate of Reading in an Electronic Age*. New York: Faber and Faber, 1994.
- Buell, Lawrence. *Writing for an Endangered World: Literature, Culture, and Environment in the U. S. and Beyond*.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DeLillo, Don. *White Noise*. New York: Viking, 1985.
- Dodge, Jim. "Living by Life: Some Bioregional Theory and Practice." *CoEvolution Quarterly*, 32 (winter 1981), pp. 6~12.
- Katz, Eric. "Against the Inevitability of Anthropocentrism." *Beneath the Surface: Critical Essays in the Philosophy of Deep Ecology*. Ed. Eric Katz, Andrew Light, and David Rothenberg. Cambridge: The MIT Press, 2000.
- Lawrence, D. H. *Apocalypse*. New York: Viking, 1967.
- Lomborg, Bjørn. *The Skeptical Environmentalist: Measuring the Real State of the*

- World*. Cambridge: Cambridge UP, 2001.
- Lovelock, James. *The Revenge of Gaia: Earth's Climate Crisis and the Fate of Humanity*. New York: Basic Books, 2006.
- Mathews, Freya. "Community and the Ecological Self." *Ecology and Democracy*. Ed. Freya Mathews. London: Frank Cass, 1996.
- Meeker, Joseph W. *The Comedy of Survival: Studies in Literary Ecology*. New York: Scribner's, 1974.
- Naess, Arne.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Trans and Ed. David Rothenber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_\_\_\_\_. "Self-Realization: An Ecological Approach to Being in the World." *Deep Ecology for the 21st Century: Readings on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the New Environmentalism*, ed. George Sessions. Boston: Shambhala, 1995.
- Phillips, Dana. *The Truth of Ecology: Nature, Culture, and Literature in America*. New York: Oxford UP, 2003.
- Plumwood, Val. *Environmental Culture: The Ecological Crisis of Reason*. London: Routledge, 2002.
- Pyle, Robert M. *The Thunder Tree: Lessons from an Urban Wildland*. Boston: Houghton Mifflin, 1993.
- Slovic, Scott. "Letter." *PMLA*, vol. 114, no. 5 (October 1999), pp. 1102-1103.
- Snyder, Gary. *No Nature: New and Selected Poems*. New York: Pantheon Books, 1992.
- \_\_\_\_\_. *The Practice of the Wild*. San Francisco: North Point Press, 1990.
- Wess, Robert. "The Theory Ecocriticism Needs." *ISLE*, vol. 17, no. 4 (Autumn 2010), pp. 762-764.
- Williams, Terry Tempest. *Refuge: An Unnatural History of Family and Place*. New York: Vintage, 1991.
- Zapf, Hubert. "Literature as Cultural Ecology: Notes Towards a Functional Theory of Imaginative Texts With Examples from American Literature." *REAL (Research in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 17 (2001), pp. 85-99.

Abstract

Envisioning the Path toward an Ecocentric Society and  
the Role of Literature

Shin, Moonsu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ver-worsening environmental crisis has sent a serious warning to the global community regarding the urgency of embarking on a wholly new social system based on ecocentrism. However the radical change from the current industrial capitalist society to an ecocentric one is not easy to carry out. What should be done along with it are the efforts to widen and deepen the sociocultural base of ecologism, that is, to prepare the public for such a fundamental shift. Three cultural agendas are proposed here as part of such efforts: the redefinition of the self in terms of ecologism, the recovery of placeness, and the increase of ecological literacy. Literature can serve as an effective means to conduct these ecological projects. As reader-response theorists have demonstrated, the reading of literary works provides the opportunities to re-describe ourselves, our situation, and our past and thus helps us to reform ourselves and to internalize alternative viewpoints unconsciously. By promoting the ecological self that is place-based and equipped with powerful ecological literacy, literary ecology will smooth the path toward the establishment of a broader framework of ecocentrism.

Key Words: the environmental crisis, an ecocentric society, the ecological self, sense of place, ecological literacy, literary ecology

**신문수** .....

미국 하와이대학교 영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타자의 초상: 인종주의와 문학』, 『시간의 노상에서 1, 2』, 『‘모비딕’ 읽기의 즐거움』 등이 있다.